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전국일동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서 1:21)

대한예수교
총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장현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바로 요요한 그 말씀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 2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 3장 하늘나라의 메시지
- 4장 골고다의 결정적인 투쟁
1.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의미

I.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의미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빛의 신학이라고 표현하였다. 루터의 말인즉, 십자가의 빛 아래서만 하나님은 올바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빛 아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의 답을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죄악의 반향이었다. 죄인들을 배반한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멀리서 거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 인류의 죄악의 반향으로 인해 크게 진노하고 계셨을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가 범한 포악한 반역을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길로 바꾸시고 계셨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더러운 짐을 뱉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서로 화목하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대대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애달하게 대항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은총과 자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지니를 수지러온 악행은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구원의 사발점이 되었다. 아, 이 일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불물짐을 떠뜨려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의 이 기이한 사랑으로 인해 울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로 울 것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겠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승리하고 완성될 수 있었던 기초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획기적인 일인 것이다. 실로 십자가는 부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사건이다. 왜 그런가? 십자가가 '승리'라면 부활은 '개산(開山)'인데, 승리가 없이는 개산의 기쁨이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승리였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이론 바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활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개산사건이다(19:30).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은 모두 거짓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영광과 축복을 구하며 사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당신은 어떤가? 십자가가 당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최고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자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곧 만유의 후사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셨다(골 1:16).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주(主)로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리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래의 형상이시대(히 1:2-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주를 공급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눈곱만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가!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의 화육이었다(롬 5:8). 십자가에서 자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랑이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다(롬 3:25).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이 세상의 경건지 않고자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처럼 죄를 완전한 형벌로 다스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행 17:30). 구속자의 대속적인 죽음 곧 인류가 과거에 범한 죄를 간파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십

자가는 온 세상의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오래 참으신 것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고, 또한 장래에 있을 모든 용서도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볼 때에만 의로운 것이니(롬 3:2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죄인이 깨끗케 함을 받는 일을 서로 연결시켜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함을 우리에게 사하셨으니" (요일 1:9). 그렇다면, 과거에 오래 참으신 일(롬 3:25), 현재의 심판(요 12:31) 그리고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롬 5:8-9)는 십자가에서 함께 만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롬 1:17).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직분은 놀라운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는 율법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인 것이다(고후 3:9).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을 믿음으로 얻는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거룩한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된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니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고후 5:21)!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요함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이다. 왜냐하면 전인하고 부끄러운 사형의 형물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이다(계 5:9-10, 벰전 2:9, 딤후 1:4).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은 십자가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곧 교회를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 땅의 것들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는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창문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는 도구'이기 때문이다(골 3:9-10).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로이다.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골 3:11-12).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다.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걷자.

2003년도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

(35대 장로, 16대 안수집사, 44대 권사)

이번 수요일(10월 29일) 수요일 2부 예배 시에

이번 주 수요일 2부 예배(10월 29일)에는 2003년도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거행된다. 이번 임직하는 분들은 피택된 7인, 피택안수집사 40인, 피택권사 57인이다. 교회는 공동의기를 통해 피택된 이들에게 지난 3월부터 총 26주간 동안 피택자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였고, 고시를 통해 그 자격을 면밀히 판단한 후에 임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임직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임직예배가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생략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였다. 교회의 직분은 인간의 명제심을 채워주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도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후한 수 있도록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행 6:1-6). 그러므로 임직예배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하 의식이나, 은(會)회로 새로 임직하는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그런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일꾼으로 세운 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7월). 이번 임직예배를 통해서도 그처럼 복음의 홍양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임직예배에 은(會)회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2003년도 제6차 성찬식

다음 주일(11월 2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LORD'S SUPPER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said, ‘Take this and share it among yourselves; for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uke 22:14-20)

Today's Bible verses concern the Lord's Supper, Jesus'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Verse 14 says, "When the hour had come He reclined at the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It's important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when the hour had come". Jesus came to this earth to fulfill God's will. His mission was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The time finally came for Him to complete His mission. After thirty-three years, "the hour had come". The exact time, the time chosen by God for Him to finish His task had arrived.

Jesus sincerely waited for this very special time. He told His disciples,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v. 15). His heart's desire was to share this last holy meal with the ones who stood by Him in His trials. The Passover meal symbolized God's actions in saving the Israelites from the Egyptians. At that time, a little lamb was sacrificed, and its blood was brushed on the doorposts of every Israelite home. God punished those without the lamb's blood by putting to death all their first-born. That day became Israel's salvation day! It was a day God required them to remember. He gave specific instructions on when and what they were to remember, detailing even how they were to eat the Passover meal, "Now you shall eat it in this manner: with your loins girded,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ou shall eat it in haste—it is the Lord's Passover" (Ex. 12:11). Indeed, this holy meal was to be remembered as the Lord's Passover, not any humans endeavor. The Lord did the work, and Israel just listened. Salvation came by His hand, not theirs. The Lord destroyed evil, and the Lord saved His people.

Jesus desired to share this last Passover meal with His disciples "before He suffered" (v. 15). He wanted to ensure that a deep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Him and those He loved. As such, he made the last supper of Passover the Lord's Supper. As you know, the cross is the climax of God's salvation plan. Jesus knew God's plan. He wanted to bring salvation to this earth. Whereas the lamb's blood saved God's people temporarily, Jesus' blood saves God's people eternally. His death provided the permanent Passover of sin and death to those who believe in Him.

Jesus made known to His disciples the wonderful meaning of His death. He even told them,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v. 16). He also said,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v. 18), or better understood,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Mt. 26:29). Here is future hope. After the Lord's Supper, Jesus said He was going to die in

order to bring salvation to believers, and when salvation reached the ends of the world, He would return and celebrate this meal in person with us in the Kingdom of God. Amen!

Jesus achieved salvation. He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into heaven. We are now awaiting His return. Just as Paul told the Corinthians, "Clean out the old leaven so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 (1 Cor. 5:7), so you, who are already cleansed, should now walk in holiness. My dear friend,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Rev. 19:9). This real event is going to take place in real time. The way of salvation is complete. The road is finished. The end destination is eternally secure. Those who believe in Jesus will sit at His Table in heaven with Him, celebrating the union. "These are true words of God" (Rev. 19:9)! It is a wonderful miracle that will happen at God's appointed time.

At the table, Jesus took the bread and gave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 19). He also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v. 20). This is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Jesus wants us to remember His death. His death brings salvation to God's people. Now, as we come to His Table to remember His death, His Spirit is with us. One day, we will come to His Table in the Kingdom of God, and we will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His death, but we will be face to face with Him. Amen!

The body and blood of Jesus are essential elements of salvation. Hebrews 9:22 reminds us, "And according to the Law, one may almost say, all things ar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the blood of Jesus,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No matter how well you've lived this life, no matter how many good deeds you've done—you're still not holy. Only the blood of Jesus cleanses away sin to make one holy. Hebrews 9:26 clarifies, "once at the consummation of the ages He has been manifested to put away sin by the sacrifice of Himself." Jesus' first coming was to bear the sins of many, His second coming will be for salvation without reference to sin, to those who eagerly await Him.

Now, let those who wholeheartedly love Him come to His Table in remembrance of His death and second coming. Let us repent of our sins, open our hearts to His love, and receive His blessing. This is a holy commemoration. This is a serious time. Please honor the Lord with sincerity. 🙏

주의 만찬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4-20).



김성완 목사

“때가 이르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곧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에서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의 뜻을 간파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눅 19:10).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마침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신 지 삼십삼 년 후에 마침내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로 하나님께 정해 주신 바로 그 시간이 마침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가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그 때를 진실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다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15절). 자신의 모든 신중 중에 항상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 거룩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役史)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이 처음 시행되던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모든 집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집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날도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그 날을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유월절 식사를 먹는 방식까지 자세히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시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11). 참으로 이 거룩한 식사는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권리이나 수고를 기념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구원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바로를 파멸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드러나는 심오한 관계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15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그들의 그 심오한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유월절 식사를 주의 만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적으로 구원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16절).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18절).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는 이것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29). 여기에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신이 죽을 것임을, 그리고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며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이 세상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의 길로 나아가라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린 5:7).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얻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9b)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지어낸 이야기라 결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장자 인류의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완전합니다. 구원을 이르는 길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길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계 19:9).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이르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놀라운 기적입니다.

떡과 잔의 의미

주의 만찬 식탁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19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떡을 먹은 후에는 잔도 그와 같이 하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2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여 그의 죽음의 의미를 기념하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아멘!

재림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는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출혈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없애줄 수 있으며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후반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나아가는 태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만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한 마음과 태도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

나를 변화시킨 단기선교

윤현숙 (집사, 9교구)



차지도 담지도 않은 미지근한 나, 주님께서 토해 버릴 것만 같은 나,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들에 박혀서 왔다갔다만 하고 성도들과의 대화조차 싫어하던 특이한 성격의 나.

단기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지역장님께 감사합니다. '선교는 우상 숭배하는 무슬림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인데 그들의 언어와 생활 관습 모두가 백지인 내가 어떻게 외국인에게 선교를 할 수 있겠다 말인가? 반문하면서 선교를 가기로 한 것을 후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주님은 나를 좌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도 생소하던 리시아 단어가 내 머리에서 하나, 둘씩 기억나면서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너 지켜주리니' 하는 다정한 주님의 음성인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나이에 많고 연약하지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모일에 열심히 동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저를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나에게도 중대한 선교 사명이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명하신 사역지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8월 12일에 인천공항에서 옆에 있는 외국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말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용기와 담력을 얻어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 숙소, 차량, 거주지 등록증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곳에서 무슬림들에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며 전도지를 주자 그들은 매우 사나운 맹수처럼 적들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전도지를 찢고 밟으며 난폭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계속 노정노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난폭하던 사람 중에서 제가 전하는 말을 경청하고 결심카드까지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둘러하는 경찰관들을 만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캠퍼스 전도에 나선 다른 팀은 경찰에 의해 여권을 압수당하고 행동의 제약을 받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팀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보람도 그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는 사탄이 강하게 대항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었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했던 저 자신과 팀원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팀 전원이 사람으로 서로 순종하고 섬기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10월 15일(수)~10월 24일(목)	K	8교구 5지역	박승길

*선교 위험회 방법으로 인하여 국가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 (4)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마 23:26).

주님께서는 밖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을 치워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보자면 안이 더러운 자들이 겉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거룩한 행위를 하여도 그것으로 안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내 속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외부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즉 심령을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까?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늘 복음만을 전했다고 한다. 그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적 행실에 대해 설교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죄악 된 행동들을 거듭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레이너드는 도덕적 선행과 인간의 본분을 내용으로 하는 번지르하고 그럴듯한 열변은 부패한 나무의 가지만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죄인으로 타락하여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단인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고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복을 허락하셨다. 이전에 술에 만취되어 살고 악행을 밥먹듯 하며 폭행을 일삼던 사람,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들, 자신의 일에 태만하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었다. 주님의 신령한 말씀이 그들의 내면에 부딪혔을 때 모든 죄악의 뿌리가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켜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의적인 본분과 법도를 지키고 개성하여 술을 끊게 한 원인은 단순한 교리 교육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내적 능력은 영혼 중심 깊이 자리잡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 우리 삶이 "안은 깨끗해. 그러나 이제 겉을 닦아야겠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심자가 앞에서 정말로 죽지 않은 너의 자아가 너의 속을 매일 더럽게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나고.

(원형설 기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④

전도자의 변명

얼마 전에 주간 총회에서 총회 교회 단기선교팀에게 복음을 들었던 한 외국인의 편지가 실린 적이 있다. 그는 자신도 총회 교회 단기선교팀이 했단대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을 들은 또다른 사람이 회포를 찾아왔다고 전했다(2003년 9월 21일자 주간총회 참조). 또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은 한 외국인이 무슬림인 자기 가족들을 격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슬림이었던 어머니로부터 단기선교팀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구해주시라고 하더라. 나도 예수 믿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2003년 주간총회 5월 25일자 참조). 올해 파송된 단기선교팀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당장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복음을 듣고 고백하며 씨를 뿌리고 결국 복음 앞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 합치라도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올바르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위험 요소가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다른 신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명예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달가워 할리가 없고 부당한 수괴에 있다. 실제로 경찰서에 끌려간 단기선교팀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

한 위험 때문에 이러한 전도를 그리고 경계하기도 한다. 쫓겨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중들이 없는 전도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방법론을 내어 놓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라. 베드로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와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은 마칠을 피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꾸었는가?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변함없이 오직 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혹은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맞다.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위험 부담이 그 때보다 많이 줄었다. 그들은 실제로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 방법을 피하는 원인이 뭔가? 마칠을 일으키기 싫어서? 웬지 무식해 보여서? 다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신도 이러한 변명을 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만일 물어보라. 성경을 펼쳐 보라. 사도들의 자취를 따라가 보라.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보인 것이다.

(원형설)

주일설교 후기

심판에 관한 노아의 백 년간 설교 (창 7:6~12)

지난 주일 말씀은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패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셨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창 6:8,11).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조종과 멸시와 회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루하루 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갔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참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노아시대에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노아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정리/박윤하)

오직 말씀으로...

율법과 위선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인 전도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오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들켜가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났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의 유혹에 빠졌다고 표현한다(갈 2:13).

베드로와 바나바는 훌륭한 전도자들이었으나 여전히 율법의 가르침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러난 그 행위를 의식하게 된다. 그 행위는 분명 거룩해 보인다. 성결해 보인다. 그리고 그 행위는 어떤 노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행실이 성결해 보이는 자들의 전도는 분명 행실이 나쁜 사람들의 전도보다 힘이 있어 보인다. 바울은 감도의 조건에 대해 “게 고집대려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갈 1:7b) 등 여러 율법적인 행위들을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른 고분으로 권면하고 거스르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할라 함이라”(갈 1:9)고 했다.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며 욕을 잘 하는 자의 전도보다 온유한 자의 전도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적인 가르침을 지기려 애를 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대부분 위선과 연결된다. 바로 주변의 인식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도망한 베드로처럼 말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온유한 성품을 지기기 위하여,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그들과 연합하기도 하고, 공평하게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행을 하기도 한다. 여러 기독교 신문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거스르는 일들을 잘라내어 칭찬하며 광고한다. 첫 시작은 복음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위선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경우를 경계하기 위해 바울은 말한다. “너희가 이같이 여러사람으로 성령으로 사귀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나니”(갈 3:3).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준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갈 3:5). 감도의 조건을 말한 후에도 율법적인 조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혜사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율법의 행위 자체에 지주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할 것을 권고한다(갈 3:5).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보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선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혹 행위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미스러워 보이더라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행위로만 그것을 담담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기고 있는 율법을 보라. 율법으로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고 있는가?

(권오섭)

충천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도구이다. 그 위에 매달린 제 몇 일간을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극형의 도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우상계도 드러라를 내뿜는 부적이나 종교를 표현하는 목걸이 등 로마시대와는 다른 의미로 다룬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은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かと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게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구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소와 양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함 받게 하셨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케 되었다. 단번에, 일회적으로 완전한 죄를 용서함으로써 더 이상 여러번의 제사는 필요없게 된 것이다. 창으로 켜진 열구리와 못 막힌 손과 발 그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린 예수님의 육체에서 흐른 보혈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죄사함의 증거가 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작년에 파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었다. 험한 산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 마야 인도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의 내 상황보다 더 힘드셨겠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셨어? 했다. “엘리 엘리 사발라!”(마 27:46). 어기에서 버려질 수 있는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 욕구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내가 구원 받았으므로 나의 욕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나의 땅에는 없고 내 집은 가버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버림의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천국에서 주어진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로마시대의 참혹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한다.

김현바(조학석)

성도의 사랑

안 경호 (청년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존속하는 그런 당신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마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섬김과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으로(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대가 없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 주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로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살아있는 저의 연약함이 사랑이 변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나의 눈이 어두워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의 담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위해 자기를 죽이까지 하신 분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청지기로서의 삶

구 재 환 (안수집사, 2교구)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자. 회심한 무덤 같은 마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 아니면... 3월간의 청지기 훈련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자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십자가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기회였다.

첫째 날, 사울의 바울 된 회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은 분명 사건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란 이름을 갖고 모진 핍박과 비참함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사도로 변화된 것은 분명 위대한 사건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열심이 나에게도 있는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때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저만치 둔 채 열심에만 사로잡혀 행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심경을 깊이 새기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다.

둘째 날, 육중에서 터져 나온 찬송은 분명 우리들 마음 속의 지진이었다. 고뇌에 찬 마음과 육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는 과연 사람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세상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분명 영혼의 찬송 소리는 창조주의 섭리를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지진인 것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십자가를 통한 참된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나에게 간절히 기도해 본다.

셋째 날, 관재와 같이 부음이 되는 죽음을 앞둔 바울처럼 순교자의 길을 선택해 봄은 어떨지 자신에게 물어 본다. 가난하고 배신을 당하고 벌사와 천대 속에 있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삶은 정말 실패한 삶일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결코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저절로 참회의 눈물이 흘러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단순히 평안하게 죽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삶을 주셨던 것이다. 아울러 죄인 중에 피수였던 나도 선한 청지기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날에 면류관을 받아 쓸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서 있는 바울의 영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위대 것을 생각' 하고 '여호와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 다음 주일 찬송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시라"

호레이시어스 보나르(Horatus Bonar, 1808-1889)박사가 쓴 성 만찬 찬송이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그의 형인 존 보나르 박사가 시무하는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자유교회에서 성찬식을 도우며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받은 영적 감격과 체험을 이 찬송시로 읊었다. 그는 성찬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과 마음 속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을 얻는 것을 깨달아 성찬의 감격과 진경한 감사와 의뢰를 이 찬송시에 담았다.

이 찬송가의 곡은 1874년 에드워드 다르(Edward Dearle, 1806-1891)가 윌트 모어의 찬송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또 다시 만나오시라" 곡으로 작곡하였다. 그는 여러 교회 오르가니스트를 역임하였다.

- 1절: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시라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내
한없는 은혜 깊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열려 맡기리
- 2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 3절: 주 예수 밖에 돌이 없으니 주님의 팔에 의지함이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함이다
- 4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할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천양위회)

주여, 뉘시오니까?

조 중 민 (안수집사, 7교구)

주여, 뉘십니까?

나는 네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잔파 예수다.

오 주여! 이전에는 나도 사울처럼

복음의 가장 잔인한 핍박자였습니다.

이제는 필경 나를 깨트려 주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를 쉬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미하게 하소서.

완전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내가 나를 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소서.

무대 너머로 펼쳐스런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관재와 같이 드러져 후일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하소서.

삶의 종결점까지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금영'성도를 소개합니다



하창시절에 잠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갖고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이번에 교회 오기 전에는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개월 전 교회를 가더니 얼마 후에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임반에서 말씀을 배으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항상 즐겁고 아이처럼 좋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현집사)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62	박연숙	1	청년2부	김성자(2)	1272	홍 보	19	외선부	박수민(17)	1282	한성식	19	청년1부	조종현(14)
1263	유민철	2	청년1부	정수선(2)	1273	유예쁘보	8	청년1부	정성주(19)	1283	이주원	19	청년1부	김옥선(1)
1264	백선희	2	청년2부	김순혜(2)	1274	윤원하	8	장년3부	황정희(2)	1284	이미정	19	청년1부	김혜경(1)
1265	백옥자	2	장년1부	황정희(2)	1275	김경희	13	청년2부	조종현(14)	1285	김지향	19	청년1부	이종철(1)
1266	김진기	2	청년2부	구자남(2)	1276	이진희	14	청년1부	최영숙(14)	1286	김아라	19	청년1부	오미연(1)
1267	이송자	2	장년3부	정복순(2)	1277	정미희	15	청년2부	서정희(15)	1287	김아름	19	청년1부	오미연(1)
1268	정종심	3	청년2부	김정자(1)	1278	남현주	16	청년2부	최하은(18)	1288	김 준	19	고등부	
1269	김성호	3	장년2부	김문섭(2)	1279	이경은	19	청년2부	정옥연(1)	1289	록	19	외선부	김석영(7)
1270	김대근	7	장년3부	이홍구(1)	1280	서지훈	19	청년2부	조종현(14)					
1271	전미선	9	외선부	조국선(1)	1281	이창기	19	청년2부	조종현(14)					

* 총회교회의 한 기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예쁜찬양대원입니다. 처음 찬양대에 봉사하기 시작할 때는 6살이었습니다. 그 때는 임마가 하라고 하셔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나님에 계시니까 그 계산 줄 알았고, 또 어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걸 찬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대를 한다기보다 ‘여대까지 해 왔으니’ 하는 습관적인 이유와 ‘친구들이 찬양대를 하나’ 하는 이유로 찬양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 찬양심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한 찬양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제 신앙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중학교 때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 성경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지켜 오던 주일 성수도 세상적인 이유로 변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찬양대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친구들의 권유와 주위 분들의 권유로 찬양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제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전 정말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부 찬양대 선배들이나 친구들의 신앙 생활을 옆에서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토요일에도 연습해야 하고 주일엔 5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늦게 끝나서 주위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할까’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만두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저를 넘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가대원 때문에 학원을 빠질 일이 생겨서 학원 선생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회에 학원보다 더 중요하니?”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물론 학원 선생님이 무서운 것도 한 가지 이유였지만, 솔직히 교회에 학원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후에는 주님의 일이 학원보다 중요하

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토요일 찬양대 연습을 가기 위해서는 매주 학원을 빠지야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 연습을 가야한다고 학원 선생님께 전화드릴 때는 참 두려웠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실까 봐, 또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또다시 선생님께 “교회가 학원보다 더 중요하니?”하고 질문했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바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용기와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학원 선생님께서 가끔 뭐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셔서 연습에 나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땐 어떻게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언제나 저를 그리고 모든 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예쁜의 고3선 배낭들처럼 고3이 돼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길 계속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올라갈 때까지 주님만 믿으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백지수(고등부)

☆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

제5강 반별 성경공부

요즘 아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생명 경시, 과학 신봉, 경쟁 구도의 사회, 한탄주의, 열기, 마법 등 엉뚱한 가치관들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TV, 게임, 영화,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폭력과 음란의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화라 불리우는 많은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事物물질주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교묘한 탈출을 쓴 거짓 선동자와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분의 공과 공부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단지 그것으로 교과서의 의무를 해치워 버린 듯,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자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천국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남는 것을 주께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는 진정한 청지기라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지기가 누구인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기나함으로 주님께 열드려 믿음을 달라고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마 5:3).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바울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요단 강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위업을 보아도 굳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고요한 반소 수 없습니다(마 5:5, 시 37:11).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짓누르도 계십니다.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원수의 발로는 다육 거세됩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는 30분의 공과 공부로 모든 것을 마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24시간 강게 태세입니다. 단 1초의 안일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대원 기자)

참 귀한 자리, 교사

박소혜 (중등3부 편집부 교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써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볼 때 마다 새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잘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못난 나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당연한데도 언제나 남들 앞에 서는 자리, 높은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분께서, 말씀하신 그 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제를 가졌습니까. 죽는 것도 복종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마땅히 영광만 오실 그 분이 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를 취하시는지... 그런데 나는 감히 고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빌 2:3) 말씀하셨지만, 나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겼고, 잘난 나의 모습을 은근히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중등부 교사가 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늘 나의 아픔을 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마음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말로 다릅니까. 나는 스스로 고집부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높이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멋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교사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고 고민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분명히 것은 교사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행복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랍입니다.

나의 죄 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대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날마다 꺾여 없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사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지몽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들을 전파하는 교사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4회 월례회
일시: 29일(수) 오후 4시 30분 주례 후
정소: 영아부실
2. 남녀 전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정소: 전도위원회 회의실

별세

1. 최철산 성도 최연철 성도의 부친, 박정식 성도의 사부, 62구 마천구(구) 15일 별세, 17일 장례
2. 이복만 타교장로 이춘하 집사의 부친, 62구 우성(구) 17일 별세, 19일 장례
3. 장신성 타교장로 박신자 권사의

모친, 11교구 목장(구) 19일 별세, 21일 장례

결혼

1. 조성영 군(김성식 권사의 아들, 6교구)과 이명숙 양(전종록 씨의 딸/ 30(월) 15:00 갈릴리움
2. 이희철 군(이성근 씨, 김진원 씨의 아들, 19교구)과 정유진 양(정성룡 씨, 전방자 권사의 딸, 4교구/ 31(월) 17:00 삼성동 웨딩의 전당 2층 도파초움
3. 이명숙 군(이병근 집사, 강경순 집사의 아들, 4교구)과 문신원 양(문명원 집사, 고경수 집사의 딸/ 11월 1일(토) 14:00 성제라미 웨딩

◆ 2003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유아세례: 오늘 오후 3시, 갈릴리움

학습세례식: 오늘 오후 5시 천안에서, 본당

*배정자는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하반기(3~10월) 정기감사 실시

감사일자: 2003.10월 30일

대 상: 전 부서(전도회 제외)

준비물: 사신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장 소: 감사위원회(제교교육관 302호)

*계정학과수회회, 여흥성경학교(가) 병행 실시

◆ 유아부 예배 안내

1부 예배: 09:00~10:00

2부 예배: 11:00~12:00

장 소: 제교교육관 210호

대 상: 만 3~4세(1999.3.1 ~ 2001.2.28 출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이 양육되는 곳입니다.

이해, 양육의 손을 잡고 왔다가 손을 놓고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곳입니다.

* 유아 모자라지 않은 유아를 데리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현기도의향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동지하심으로 주셨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령을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시게 하소서.

② 모든 고백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건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절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령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주어진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의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⑥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에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⑦ 단기전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의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직원모집

1. 모집부서: 기도원 식당·기도원 관리인
인쇄실·장비실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본
당첨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현교회

11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 예배 (안수집사)		수요일 예배	
		I	II	III	IV	V	I	II	III	IV
11	2	전종현	김종구	최유덕	한승국	김영수	김성호	왕유남	전종현	김성호
	9	임부원	노광현	정문석	김진채	이태식	이종원	김명자	한동열	한동열
	16	전종현	김경남	이형수	박정호	김영은	정원근	문하수	원종철	원종철
	23	신상수	황의만	황영일	장보용	차진동	장기찬	윤하경	양숙자	양숙자
	30	김환기	이창호	최지훈	원종철	안종욱	홍원식	정유남	강호일	강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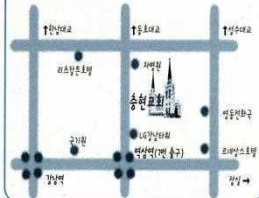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1(토)	2(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종석	김성관/박상대	김용국/김경환	고광환/김대용	위관정/김종홍	정종신/안태순	이희식/조옥자

예배 담당안내 (10/29~11/2)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회	기도	설교
10/29	수요일		정현민	장찬철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8:26-27) 김성관 목사
10/29	수요일		김정관	이종대	성도의 봉사 자매(8:13-17) 예종철 목사
10/31	금요일	특별찬양 (소프라노 김지희/선교창단 8교구)	나영애		찬양찬사 목사
11/2	주일		고광환	전종현	주의 만찬(22:24-26) 김용국 목사
11/2	주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외로움도, 노영애(임아영 찬양대 솔리스트)	박종영	김종구	주의 만찬(22:24-26) 김성관 목사
11/2	주일 III	내 맘에 가는 길의/트럼펫 최두부, 최은진(함평호 아케스트라)	이성기	최윤덕	주의 만찬(22:24-26) 김성관 목사
11/2	주일 IV	구와 함께 나 죽었다/외로움도, 김진원(한글문화원 찬양대 지휘)	안창득	한승국	주의 만찬(22:24-26) 전종현 목사
11/2	주일 V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외로움도, 최정원(한글문화원 찬양대 솔리스트)	정현민	김영수	주의 만찬(22:24-26) 김성관 목사
11/2	주일찬양		서광진	김성호	전도자(8:26-40) 이종철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10:5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주요일 제외)	본당
	V 오후 5:00	본당
찬양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일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최종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일 예배	오후 10:30	본당 앞 주차장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년부	I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II 오전 10:50	교육관 407호
소년부	I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II 오전 10:50	교육관 301호
중등 1부	I 오전 9:00	교육관 3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401호
중등 2부	I 오전 9:0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301호
고등부	I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전근	이병학
신로교회	72구	당파사	해방교회	2구
최대원	이병철	강보훈	이훈	남선우
해방교회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정문석	김영길	문종구	조진태	김종구
62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최귀진	김진채	이창호	차진동	김경남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이종석	이병학	안종욱	임부원	최기홍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이갑재	전종현	전종현	이정우	김단용
15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황영일	한승국	김영수	김환기	원종철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이형수	안종원	황의만	김영환	최윤덕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전종현	박종규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전명환	조종환	배준수	김영환	이성호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박진성	최기홍	노광현	박현기	정정길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신상수	강경철	고재성	김영은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서광진	박기원	여성기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류병희	이종철	김영환	여국근	김교성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안창득	방종현	나영애	정진호	김용국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고광환	위관정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지원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이태복	정종신	양종철	이성진	조규호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최성규	이종철			
제2교구	제2교구			
■ 남전도사 이병희 (이교)				
■ 여전도사				
정현희	신종호	윤진숙	한영준	김연식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홍순애	이국주	김달자	안태순	김정연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조옥자	강덕철	김정진	장영주	최문선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전은희	김영환	김지자	이수경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 찬양감독 강인구 ■ 전집사서 서준성				
■ 찬양감독 김소연				
■ 단기선교 강기영 (소명)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교)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